전법 일기

여행서 찾지 못한 삶 목표
부처님 가르침서 찾아보길

여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어느 날, 제주도에서 한 달을 지내다 막 서울에 왔다는 프랑스인 여성이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다.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 그에게 나는 먼저 방을 안내하고, 사찰복으로 갈아입게 한 후 템플스테이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아직 한 번도 혼자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했기에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세계를 혼자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이들은 과연 이 여행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이런 궁금함을 뒤로 한 채 그 외국인 참가자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저녁 일정 중 선택사항인 108배를 할지를 물으니 선뜻 하겠다고 했다. 호기심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오히려 108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여성도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이내 따라 하기에, 108배를 경험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매일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성은 108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접고 멕시코에 살고 있으며 1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한국에 남편과 함께 왔는데 남편이 손목을 심하게 다쳐서 치료차 먼저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왜 그리 오랫동안 집을 떠나 여행하느냐고. 그녀의 답은 인생의 목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었다. 선재 동자의 구도 여행인가? 그래서 다시 질문하였다. 그 목표를 찾았느냐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전날 이태원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많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채식가인데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나는 절에서 조용히 명상도 하고 채식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절에 잘 오셨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것도 인연이니, 여행에서 찾지 못한 삶의 목표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러면 분명 내 안에서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매일 아침 절도 하고 명상도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템플스테이 참가하기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꼭 다시 한 번 한국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공양간으로 이동하자 채식으로만 이뤄진 사찰음식을 보고는 매우 만족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저녁예불 참석을 독려하고 절에 머무는 동안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절을 나서며 일주문 앞에서 부처님 전에 감사의 절을 올렸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⑱ 부부학교 ②

배우자에게 감사·선업 일기 써 보라

전생의 원수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부살이가 고달프다는 뜻이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트랙을 굳이 한 다리를 같이 묶은 채 이인삼각으로 달린다. 매 순간 서로 합의하고 경청하고 보조를 맞추며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인삼각의 고행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모든 행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락의 과보가 따른다고 말한다. 전생의 원수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원한을 푸는 일이다. 더 행복하기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고르고 고른 배우자가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는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한을 풀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 앞에 있는 웅덩이를 다 채우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흘러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웅덩이라는 고난은 실은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앞길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한계를 알려 주고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이 괴롭다고 도망쳐 봤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야 한다. 이러한 부부생활의 숨은 이치를 깨닫는 날 전생의 원수는 현생의 귀인이 되리라.

부부학교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 만트라가 있다. ①"지금 이 일이 과연 죽고 사는 문제인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외워야 하는 만트라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②"허공이 허공을 나는 새와 허공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두 번째 만트라다. ③"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변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는 법이다. 최소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터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다."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세 번째 만트라다.

많은 갈등 사소한 감정싸움서 시작
감정과 나 자신 동일시하지 않아야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달라져

지금 로또 100억원에 당첨돼 은행에 가는 사람은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 대도, 옆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도 얼굴에 온통 함박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평소 '그러면 안 된다'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진 사람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대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수용할 것이다. 100억원이라는 긍정 자원이 주는 힘이다.

부부학교 수료생들은 반드시 딴 주머니 하나씩은 차야 한다. 하루에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 다행스러웠던 일을 적는 '감사일기'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 그리고 친절과 양보, 헤아림을 베풀고 적는 '선업일기'가 그것이다. 보물찾기처럼 날마다 내가 받은 고마움을 발견하고, 또 직접 선행을 실천하며 예금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 통장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 주는 수호신이며,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만능통장이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백지수표다.

배우자에게 감사일기와 선업일기를 써 보라. 다 너 때문이라는 '남탓지옥'의 불길 속에서, 화중련(火中蓮) 불길에도 젖지 않는 한 송이 연꽃을 피우리라.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조계종 중앙종회에 바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새로운 종책모임 '정법회'가 8월 4일 출범했다. 정법회는 종단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특히 중앙종회가 본래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반성과 문제의식에 공감한 14명의 스님이 뜻을 모아 결성한 종책모임이다.

정법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종회가 종단의 미래보다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종헌·종법이 일부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종헌·종법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종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종책과 제도를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다. 중앙종회가 펴낸 〈종헌의 이해〉는 종단이 종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집행부의 전제적 종권을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민주적 운영에 적합하고 △종도주권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종도가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방향을 설정하는 책무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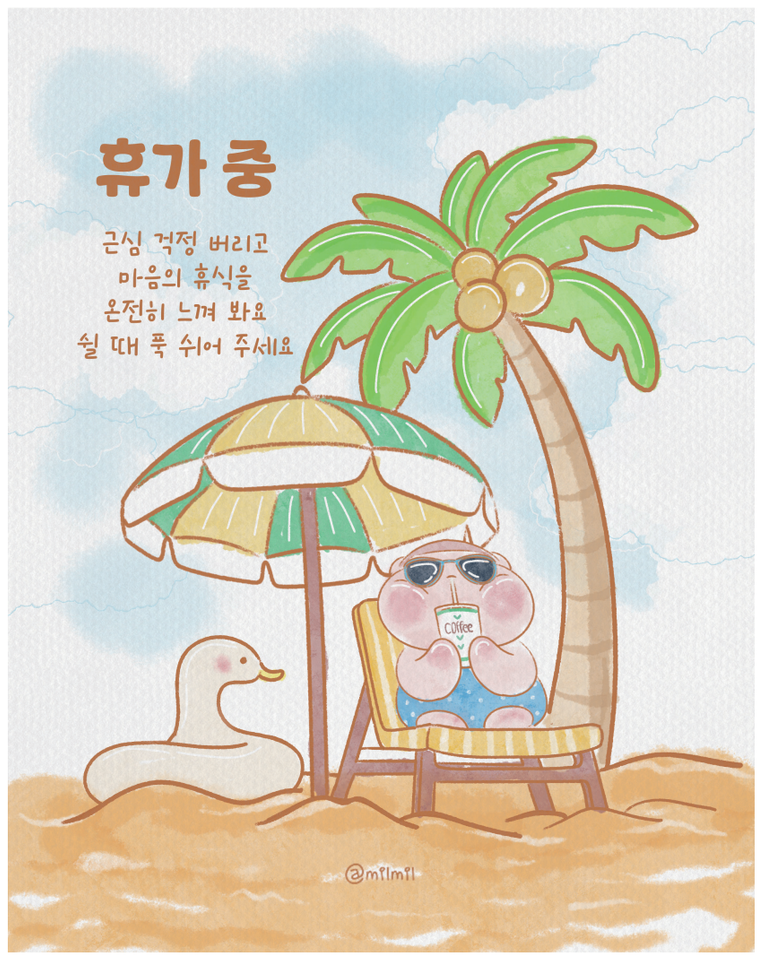
그러나 종헌·종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안에 따라 견해를 바꾸고 시류에 따르는 태도로는 건강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선 몇몇 종회의원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다. 종회 모든 구성원이 입법기구로서 종헌·종법을 면밀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활동에 임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종회가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종단 운영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관계와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종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불교계가 간절히 바라는 변화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계戒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